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무의미

전북 도내 건설업계, '잼버리부지 1, 2공구 매립공사' 입찰공고 강력 반발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 2공구 매립공사' 입찰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도내 건설업계가 공고 예정인 발주처의 실적평가를 놓고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토목공사업 시공실적 인정규모(1/9), 평가규모(1/3)로 제한 입찰 공고할 경우, 1공구에는 도내 업체가 약 16개사, 2공구는 약 14개사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만금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 공사에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부 대기업은 우대기준(7점)을 적용하지 않아도 만점사가 존재하면서 전북업계를 위한 우대기준이 달

랐던 게 신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지역에서 벌어지는 입찰에 종합건설사 600여개가 있지만 일부 소수에만 입찰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 도내 건설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전북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오는 2022년 9월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232만㎡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규모가 약 2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토목공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기본계획, 사업계획 작성성재검토, 세부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지난달 30일 조달청에 입찰 관

련 계약요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원가심사 등 기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달청과의 협의가 끝나는 이달 안으로 관련 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 평가 방식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 점이다.

도내 A건설업체 대표는 "일부 대기업들이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대신 농업토목 실적이 좋은 전남 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든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공동도급도 40%를 주지 않고 20% 이내 만 컨소시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건설업체 대표 역시 "한국농어촌공

사가 예상대로 공고를 한다면 실적사가 소수에 불과해 전북업체는 대기업만 바라보게 되는 실정"이라며 "천억 원대인 각 공구별로 실적사가 30개 이상이 돼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C건설업체 입찰 관계자는 "실적 인정 규모를 1/15로 평가규모를 1/5로 낮추면 도내 업체가 최대 40여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추석 이후 입찰 공고가 유력한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 입찰 진행 시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시공실적을 1/3에서 1배 늘리고, 지역업체 우대기준 기여도점수를 4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 등을 조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오늘부터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 시작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위해 네 번째 대국민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

LX는 우수한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창업공모전)을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X는 2016년부터 실시한 창업공모전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30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자금, 공간, IT 인프라 등을 지원했으며, 68명의 신규 고용과 55.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LX는 접수된 아이디어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11월 중 총 10팀을 최종 선정하고 팀당 최대 3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10팀은 향후 1년간 공간정보 데이터·컨설팅 등을 제공받고, 논현동에 위치한 창업보육시설인 LX공간드림센터에 입주하는 특전도 누리게 된다.

공모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www.lx.or.kr)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는 이메일(lxgeodream@lx.or.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주·익산·군산시 40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가물채소 식재체험을 실시했다.

"월동 준비하면서 협동정신 배워요"

전북농협, 가물채소 식재 체험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도시 어린이에게 농업가치를 알리기 위해 스쿨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북농협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주·익산·

군산시 40개 초등학교에서 약 3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가물채소 식재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초등학교 내에 유휴 부지인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례로 줄을 선후 무 씨앗과 배

추 모종을 직접 심었다.

앞으로 학생들은 3개월 동안 주 1회 텃밭에서 추위에 잘 견디는 김장채소인 무, 배추를 관찰하면서 내한성과 로제트 현상을 배울 예정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 텃밭에서 재밌게 작물도 기르고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 농자삼락의 원칙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판매 10% 할인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상품권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행규모는 3000억원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발행시까지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할인율을, 2000억원 초과 시 6%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구매한 상품권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 모바일상품

권 가맹점은 전통신장통통(www.sjngton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는 개인간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되는 등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www.jb.com.kr) 또는 콜센터(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주거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내, 추석 맞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LH(사장 변창흠)는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8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인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2019년부터는 고령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은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이와 홍보용 부스 및 상담

창구 등을 설치하여 보다 자세한 제도 홍보를 하겠다는 각오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공동주택·장애인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주거복지 사업소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및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의 수요에 맞춘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포 홈페이지(bkfa.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국회의원이 지난 10일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 45만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 원금은 540만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납입원금 대비 10만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되어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했었다"며,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경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